

## ‘통합시 출범 16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 5월 9일 오전 10시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사천시 출범 16주년을 맞이하여 12만 시민들이 이 날을 경축하고 시정발전을 더욱 더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 9일(월) 오전 10시 시청 2층 대강당에서 각계 각층의 시민 500여명을 초청하여 ‘시민의 날’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5월 10일 시민의 날이 석가탄신일과 겹쳐 하루 앞당겨 5월 9일 실시하게 되었으며, 행사진행은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 행사로 시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 공연이 예정되

어 있다.

행사 주요내용은 체육대회나 각종행사 등에서 수상하여 우리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거나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시민화합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표창을 하고 기념사, 축사, 시민의 노래 제창을 하게 된다.

한편 사천시는 세계로 미래로 도전하는 경남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지역이 사천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첨단항공우

주산업의 메카, 가장 성공적인 외자유치지역, 그리고 대진고속도로와 삼천포대교를 주축으로 남해안 관광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시정의 모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으로 아름다운 꿈이 영글고 밝은 미래가 열리는 희망의 도시 사천시를 만드는데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차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광경

## 사천아카데미 제55강좌 『행복하게 더 많이 웃기』

### 5월19일(목) 오후2시 사천시청 대강당 2층



방송인 유인경

- 강사약력
- 1959 서울 출신
- 1982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 2000 경향신문 편집국 대중문화부 차장
- 2003 경향신문 편집국 여성팀 팀장
- 2004 경향신문 편집국 뉴스메이커 부장
- 2005 경향신문 출판본부 주간국 뉴스메이커 부장

사천시는 오는 5월 19일(목)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방송인 유인경씨를 초청하여 “행복하게 더 많이 웃기” 라는 제목으로 사천아카데미 제55강좌를 개최한다.

여성 최초로 시사주간지 편집장을 역임하고 현재 경향신문 편집국 선임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유인경씨는 2004년 경향신문 weekly의 <유인경이 만난 사람>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뷰 기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또한 KBS <아침마당>, MBC <아주 특별한 아침> 방송 출연과 <해피먼데이>(2002), <대한민국 남자들이 원하는 것>

(2005)등 책까지 낸 멀티플레이어로 맹활약하고 있다.

유인경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해피바이러스를 주기 위해서는 ‘6H’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녀가 말하는 ‘6H’는 Hi-자신이 먼저 하는 인사, Hear-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전달하는 법, Habit-습관하고 긍정적인 태도, Hearing-남의 말 잘 듣기, Humor-어떤 일이든

즐겁게 해주는 유머, Happiness-행복 즐기기인 여섯가지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6H’를 지니고 있으며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방송인으로서 방송에서 뜻다한 재미있고 유머스러운 이야기도 소개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다, 유채꽃향에 취하다

사천시에서 가운 녹도·초양도의 유채밭이 주변 섬과 바다, 그리고 창선·삼천포대교와 조화를 이루면서 황홀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 세계적 항공해양관광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하며...

정만규 사천시장을 포함한 우리 방문단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한 해양관광산업과 항공우주엑스포를 비롯한 항공관광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미국을 다녀왔다.

사천시는 앞으로 해양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해양관광도시와 항공우주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항공해양관광 분야에서 우리보다 나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선진 외국 사례를 둘러보고 우리 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외 선진 사례 탐방을 다녀오게 되었다.

사천시는 금년부터 초양~각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건과 유사하게 바다 위를 가로질러 운행하고 있는 싱가포르 센토사섬 케이블카를 견학하게 되었다. 또한 올해로 7회째 맞는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세계적 행사로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활로 모색 차원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에서 개최된 2011 선앤펀 엑스포(SUN'N FUN EXPO)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케이블카 사업과 항공우주엑스포 등의 시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실무부서 과장 2명을 포함하여 5명의 최소 인원으로 이번 방문단을 구성하였다. 전체 일정 가운데 항공기를 탑승한 44시간과 공항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면 약 60시간 정도를 공항과 항공기에서 보낸 것 같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미국 올랜도로 이동할 때에는 항공기를 3번 갈아 타고 약 21시간을 좁은 일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등 이번 출장 일정은 아주 힘든 강행군이었다고 생각된다.

싱가포르 센토사(Sentosa)는 1968년 관광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1974년 2월 개장한 해발 110m에 위치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다.

항만간의 지점을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케이블카로, 싱가포르 본 섬과 항만을 가로질러 센토사 리조트 섬을 연계한 케이블카를 말한다.

총연장은 1.72km로 타워 간 평균거리는 약 400m로 3개의 스테이션으로 구성되었다. 1974년 개장 당시 43개의 캐빈으로 운행했으나 더 많은 요구로 1994년 80개의 캐빈으로 늘려 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간당 700명에서 1,400명으로 승수 인원을 증가시켜 현재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전 세계 최초로 360도 사면 관광이 가능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방문단은 센토사의 해상 케이블카를 직접 운영하는 Mount Faber Leisure Group을 방문하여 케이블카 운영 실태와 더불어 정비시설과 주변 시설을 견학하였다.



싱가포르 센토사의 해상 케이블카 전경

해상케이블카로 유명한 싱가포르 센토사가 초양~각산에 비하면 자연 경관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각종 인공 위락시설이 조화되었고, 가족 단위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또한 센토사섬과 페이브산을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는 안전성에 무척 신경 쓴 모습이었는데, 비상용 식량과 낙뢰 방지용 케이블, 그리고 캐빈 안에 설치된 LCD 화면 등을 이용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방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해외 탐방을 통하여 해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전국 최초로 바다 위를 지나는 케이블카라는 점이 특징인데, 한편해상국립공원 중심부에 속하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밑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성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해상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출렁다리나 레이저쇼 그리고 실안관광지 등의 사업을 연계시킨다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2011 SUN'N FUN INTERNATIONAL FLY-IN & EXPO는 3월 29일(화)부터 4월 3일(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중부 템파와 올랜도의 중간에 위치한 레이크랜드(LAKELAND) 도시에 위치한 Lakeland Linder Regional공항에서 열린 세계엑스포이다.

올해로 37회째 맞는 행사로, 민간 항공기와 자가용 항공기가 중심이 되어 소형비행기 전시와 항공에어쇼 그리고 수상비행기 시범행사 등을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민간항공기 엑스포라 할 수 있다.

행사를 총괄하는 SUN'N FUN 회사의 CEO 면담을 통하여

행사 전반에 대한 설명과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행사장 견학과 더불어 캠프시설, 주차시설, 편의시설 등 행사장 주변 시설 자료 조사를 통하여 행사장 규모와 기본시설 그리고 부대시설 등을 파악하였다. 회사의 수익사업 분야는 SUN'N FUN EXPO 행사가 가장 큰 수입원이며, 나머지는 항공박물관 운영 사업, 여름 항공 캠프와 항공체험교실 등 교육프로그램사업 그리고 항공 행사 시 회사 소유의 행사 및 교육시설을 임대해주는 교육시설임대사업 등 이라고 한다.



2011 선앤펀 엑스포(SUN'N FUN EXPO)행사장 광경

에어쇼(Airshow)의 규모는 매일 약 35대의 항공기가 참여하여 매일 오후 2시경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여러 종류의 항공기들이 펼치는 멋진 하늘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다.

수상비행기 전시 및 해양 에어쇼 행사를 주관하는 Fantasy of Flight 회사를 방문하여 수상비행장 운용 및 활용 사례 조사와 더불어 참가 수상비행기의 사양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양 에어쇼 행사는 본 행사장에서 약간 떨어진 레이크 애그네스 호수(Lake Agnes) 부근에서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25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상비행기 행사로서 100대의 수상기와 1,000여명이 참석 예정이라고 하며, 다양한 수상비행기들의 비행 시범과 더불어 착수비행, 수중이착륙 시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미국 올랜도의 선앤펀 엑스포를 참관하면서 모든 행사를 민간단체만이 주도하고 있음에 놀랐다. 즉 세계적인 행사사업에도 정부 지원 없이 민간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민간단체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광고수입과 버스 등 임대수입, 그리고 입장료 수입 등으로 행사 전체 경비를 충당할 만큼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

참고로 1인 기준 1일 입장료는 20달러이고, 엑스포 기간인 일주일 동안 약 16만명 정도가 다녀간다고 한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비행기는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심지어 에어쇼에 참여하는 항공기도 체제비 등 실 경비만 지원받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순수 민간 자율행사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인 셈이다.

플로리다 항공박물관(The Florida Air Museum)의 전시 항공기와 관람 시설 견학을 통하여 앞으로 사천에 건설될 과학관 사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N항공체험장비 자료를 조사하였다. 또한 올랜도 시내에 위치한 헬기관광투어 회사(Air Florida Helicopter Charters, INC)에서는 항공관광 노선과 관광 비용 등 헬기를 이용한 항공관광 운영 실태를 파악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반드시 세계엑스포로 발전하여야 한다. 경남 사천의 항공산업을 전 세계에 알릴으로써 경남항공산업의 세계화를 추진하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항공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시작할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된다.

해외 우수 사례의 구체적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우리 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색을 고려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적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올해로 7회째 맞는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세계엑스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에어쇼 프로그램과 항공우주체험행사의 다양화 그리고 산업엑스포로서 수출상담회와 투자유치 설명회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민간법인체에서 자체 수입을 올릴 방안을 찾는 동안 국비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엑스포 규모를 확대하여 세계엑스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비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자체 로고를 개발하여 상표 등 등록하고 이 로고를 이용한 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자체 수입을 올릴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다. 민간법인체에서 자체 수입을 올릴 방안을 찾는 동안 국비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엑스포 규모를 확대하여 세계엑스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비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항공우주산업도시와 항공해양관광도시로의 발전이 미래 사천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항공우주산업과 더불어 항공해양관광산업이 미래 사천의 먹거리임은 분명하다.

사천시가 해상 케이블카 사업과 더불어 항공해양관광 프로그램 도입을 통하여 항공해양관광도시로의 발전을 더욱 더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아름다운 사천시 봄 단장

## 농업기술센터 꽃거리 조성세 시민 호응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봄을 맞이하여 시청 앞 대로변과 주요 시가지에 대한 봄꽃단장을 새롭게 하였다.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팬지를 비롯한 봄초화류 30만본을 생산하여 주요시가지 도로화분 배치와 읍면동주민자치센터 환경미화에 900여개를 분양하고, 봄에 어울리는 가로화단 14개소를 조성하여 항상 꽃이 피어있는 사천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각급학교, 공동주택, 유치원, 군부대 등을 비롯한 주요 기관에 꽃포를 분양해 식재하게 하고, 시민들에게도 꽃을 나누어 주어 시민

모두가 꽃을 가꾸는 계기를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삼천포대교와 사천공항 주위에 새로운 형태의 난간결이화분을 설치하여 사천을 찾는 이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화사한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고,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사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향촌동에 위치한 꽃양묘장에서 매년 100만본의 초화류를 생산하여 각종 축제 때마다 축제분위기 연출을 위하여 행사장 주변에 아름답고 특색있는 꽃장식을 하고 있으며, 해마다 봄가을에 걸쳐 상시적



으로 시민들에게 꽃을 나누어주고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천시를 꾸며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꽃밭과 난간결이화분을

비롯한 많은 꽃조형물을 만들어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사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화려한 꽃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強小農) 육성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強小農)』을 육성하기로 하고 지난달 20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120명을 선발 육성하기로 했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한국농업의 새로운 희망『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強小農)』을 육성하기로 하고 지난달 20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심의를 통해 120명을 선발 육성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120명의 농가를 집중 지원하여 역량을 향상시켜 강소농으로 육성하고 우수사례는 모델로 확산할 계획이다.

농업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경영체로, 기술혁신, 상품 차별화, 마케팅 등에 자발적인 경영혁신 의지가 높으면 어느 농가나 신청이 가능하며 2012년 이후에는 매년 200농가씩 육성하여 지역단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강소농 육성을 위해 생산기술혁신과 유통·마케팅 혁신을 위한 전자상거래와 포장개선, 친환경매장 유통판매 등을 실시하고 신상품개발과 참다래 와인, 딸기 썸 가공, 녹차, 어성초 등 농산물가공을 통한 부가치 향상과 농촌어머니회 활용으로 농가 소득 10%이상 향상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특히 기술을 통한 강소농 육성을 목표로 사천농업대학 운영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작목반, 전문교육 등을 통한 각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 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 중이다.

##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개최

### 삼천포체육관서 1,000여명 참석, 체육행사와 장기자랑

사천시는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제11회 사천시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를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 삼천포체육관에서 강기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과 장애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장애인 복지증

진에 힘써 온 유공자(도지사 2, 시장 9)에 대한 표창장 전달에 이어 2부 행사로 팔씨름과 훌라후프 돌리기 등의 체육행사가 개최되었고, 장기자랑으로 행사의 절정을 이루면서 행운권 추첨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뷔페음식을 준



비하여 장애인을 격려하였으며, 공군 제3218부대 장병과 적십자사 사천시지부 봉사대 70여 명이 참여하여 행사도 의미와 음식을 제공했다.

## 제13회 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개최

제13회 사천시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5월 4일 남양동 대례마을 소재 대포물양장에서 자연보호 가족, 유관 기관 단체, 시민 등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

화 활동으로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천시가 후원하고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회장 장찬욱)가 주관한다.

이날 행사는 자연보호 14개 읍면동협의회 및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안변에 떠 밀려온 쓰레기를 수

거하여 바다를 정화하고 자연을 되살리는 활동으로 이어지며, 참여한 단체 인원과 분리수거 그리고 쓰레기 수거량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우승, 준우승, 장려팀을 선정·시상함으로써 자연보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보호운동 유공시민 14명과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시장 표창장을 수여하게 된다. 자연보호사천시협

회회는 모든 회원이 평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봉사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에 발맞추어 지방의제21 실천운동과 온실가스줄이기 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 등 다양한 친환경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우동정

## 새 봄 [사천삼천포에 가보자]홍보활동 시작

잔설 속에서도 피어난다는 매화가 아직도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쌀쌀한 느낌마저 드는 3월 27일, 3월의 마지막 일요일, 우리 [사천삼천포에 가보자]은 동분부도 이미 '회집 및 식당 업소 내 사진전시장 설치'를 비롯하여 마라톤 출전 등 전국에서 우리 고향 사천시를 알리고 자랑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 [다대마라톤 동호회 20여명 출전] 홍보

지난 3월 27일 오전 9시, 부산 해운대 벅스코 야마타에서 출발하는 제9회 KNN환경마라톤대회에 우리 고향 홍보에 협력하는 부산 다대마라톤 동호회 회장, 김기석 전 회장, 김현철 전 총무, 정연수 회원 등 20여명이 등에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등표찰을 달고 출전, 우리

지역을 알리고 자랑하며 달렸다.

[달달이 마라톤 클럽] 홍보 출전 그리고 또 달달이 마라톤 클럽에서도 유진길, 김홍석, 이봉래, 전봉근, 60을 넘긴 회원들이 같은 대회 하회코스에서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등표찰을 달고 출전하였다.

이날 대회 코스는 벅스코 광장을 출발점으로 해운대해수욕장-조선비치호텔 앞-동백섬을 한 바퀴 돌고 광안리 해수욕장을 지나 부경대학 주변 광안대교 진입로 지점에서 돌아오는 코스였다. 달리는 코스 주변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사천삼천포에 가보자]라고 현수막을 걸고 6천여 선수들과 가족들, 많은 시민 관중들에게 우리 사천시를 알리고 자랑하는 홍보도 하며 평소 다져 온 체력을 시험하면서 즐겁게 달렸다.

## 대구 사람들은 사천·삼천포를 어찌 생각 하는가?

"먼 산봉우리에서 내리 부는 바람에도 이미 고향의 기척은 있다"고 시인 황달린은 노래했다. 그렇듯 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사천·삼천포 사람들도 마음이 기르고 꾸민 고향을 등에 업고 살고 있다.

물 오른 나뭇가지에서 봄의 기색을 품이 먼저 눈치 채고 신호를 보낼 때 나는 봄빛을 닮아서 순하고 부드러운 삼천포 바다를 향해 달렸다. 가슴속에서 파도치는 송포동 해안 길에서 실안 해안도로로 이어지는, 금빛 물결이 유혹하고 있는 아름다운 바닷길을 세상 모르고 즐겼다. 삼천포에는 바다가 살고 있다. 사람보다 바다가 더 주인 양 그 푸른 물결을 날마다 뒤채고 있다. 난 새삼 바다를 품으면서 이 바다의 생명력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1980년대 초에 대구로 공간이동했다. 그때만 해도 대구 사람들은 사천·삼천포를 잘 몰랐다. 안타깝게도 '삼천포로 빠진다'는 잘못된 인식 정도였다. 아, 아름다운 쪽빛바다와 싱싱한 수산물과 명물인 쥐포도 있는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두고 하필이면 그런 잘못된 인식이더니...

그러나 드물게 삼천포 쪽빛바다를 좋아해서 작품 속에서 삼천포 바다를 그려내고 있는 예술가들을 만날 때가 있었다. 난 화가나 시인, 소설가들에게서 삼천포 바다를 추억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물물했다.

이제 나는 대구에서 30여 년 가까이 살았으니 대구 사람이 다 되었다. 그래도 내 마음은 내 삶의 근원인 삼천포 쪽빛바다에 가 닿아 있다. 바다는 삼천포의 상징이다. 대구 사람들도 '삼천포' 하면 퍼뜩 떠오르는 것이 '바다'라고 한다. 아직도 더러는 바다보다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번도 삼천포에 가보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아서 삼천포가 낯선 것은 사실이지만 '삼천포' 하면 바다가 생각나고, 쥐포가 생각나고, 싱싱한 수산물이 생각나고 한다. 그래서 삼천포에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한 번이라도 다녀온 사람들은 또 가고 싶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우리 사천·삼천포가 아직까지 대구 사람들에게겐 미지의 세계다. 1980년대 초에 대구로 우리 사천시를 다녀갈 수 있도록 사천·삼천포가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재대구 사천·삼천포 향우회' 회원들도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직 사천·삼천포를 모르고 있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나 또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싱싱한 수산물이 풍부한 우리 사천·삼천포를 알리는 일들에 열성을 가져야 하리라.

노진화/도서출판 '생각과 느낌'  
대표. '재 대구 43향우회' 재무

<h3>2011. 4월 사천시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h3> <p>◎ 사천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수도센터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매일 7개 항목, 매주 7개 항목, 매월 58개 항목, 매월 16일 이상 노후관 15개 항목, 매월 가정수도꼭지 9개 항목, 매분기 급수과 정별 11개 항목)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4월 관명정수장 및 광역상수도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와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p> <p>1. 상수도 정수장</p> <table border="1"> <thead> <tr> <th>정수장명</th> <th>관명정수장</th> <th>K-water 사천정수장</th> </tr> <tr> <th>위 치</th> <th>관명면 정거리 산하기관</th> <th>측동면 배관리 18</th> </tr> </thead> <tbody> <tr> <td>검사 항목(총58개)</td> <td>수질 기준</td> <td>수질 검사 결과</td> </tr> <tr> <td>1 일인산염</td> <td>100cfu/ml이하</td> <td>0</td> </tr> <tr> <td>2 총대장균</td> <td>불검출/100ml</td> <td>불검출</td> </tr> <tr> <td>3 불소</td> <td>1.5mg/L 이하</td> <td>불검출</td> </tr> <tr> <td>4 암모니아성질소</td> <td>0.5mg/L 이하</td> <td>불검출</td> </tr> <tr> <td>5 질산성질소</td> <td>10mg/L 이하</td> <td>1.0</td> </tr> <tr> <td>6 전류염소</td> <td>4.0mg/L 이하</td> <td>0.74</td> </tr> <tr> <td>7 총트리할로메탄</td> <td>0.1mg/L 이하</td> <td>0.021</td> </tr> <tr> <td>8 클로로포름</td> <td>0.08mg/L 이하</td> <td>0.016</td> </tr> <tr> <td>9 경도</td> <td>300mg/L 이하</td> <td>44</td> </tr> <tr> <td>10 수소이온농도</td> <td>5.8~8.5</td> <td>7.8</td> </tr> <tr> <td>11 중금속총량</td> <td>500mg/L 이하</td> <td>101</td> </tr> <tr> <td>12 철</td> <td>0.3mg/L 이하</td> <td>불검출</td> </tr> <tr> <td>13 탁도</td> <td>0.5 NTU 이하</td> <td>0.22</td> </tr> <tr> <td>14 냄새</td> <td>이취 없을 것</td> <td>적합</td> </tr> <tr> <td>15 맛</td> <td>이취 없을 것</td> <td>적합</td> </tr> <tr> <td>16 할로아세티라이드와 13개 항목</td> <td>-</td> <td>각 정수장별 불검출 및 수질기준 이하</td> </tr> <tr> <td>17 대장균의 28개 항목</td> <td>-</td> <td>각 정수장별 불검출</td> </tr> </tbody> </table> <p>2. 검사결과</p> <p>◎ 4월중 관명정수장 및 광역상수도 수돗물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 58개 전 항목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로 적합하며</p> <p>◎ 수돗물에 소독 냄새가 나는 것은 수인성전염병 예방 및 2차 오염에 방을 위하여 염소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차게 해서 드시거나 보리차 등을 넣어 끓여 드시면 보다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p> <p>2011년 4월 19일 사천시장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p>	정수장명	관명정수장	K-water 사천정수장	위 치	관명면 정거리 산하기관	측동면 배관리 18	검사 항목(총58개)	수질 기준	수질 검사 결과	1 일인산염	100cfu/ml이하	0	2 총대장균	불검출/100ml	불검출	3 불소	1.5mg/L 이하	불검출	4 암모니아성질소	0.5mg/L 이하	불검출	5 질산성질소	10mg/L 이하	1.0	6 전류염소	4.0mg/L 이하	0.74	7 총트리할로메탄	0.1mg/L 이하	0.021	8 클로로포름	0.08mg/L 이하	0.016	9 경도	300mg/L 이하	44	10 수소이온농도	5.8~8.5	7.8	11 중금속총량	500mg/L 이하	101	12 철	0.3mg/L 이하	불검출	13 탁도	0.5 NTU 이하	0.22	14 냄새	이취 없을 것	적합	15 맛	이취 없을 것	적합	16 할로아세티라이드와 13개 항목	-	각 정수장별 불검출 및 수질기준 이하	17 대장균의 28개 항목	-	각 정수장별 불검출	<h3>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h3> <p>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거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p> <p>□ 201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p> <p>○ 공시기준일 : 2011. 1. 1</p> <p>○ 결정·공시일 : 2011. 4. 29</p> <p>○ 대 상 : 사천시 소재 개별주택 21,038호</p> <p>○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가격 등</p> <p>○ 열람장소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청 세무과, 사천시청 홈페이지[주택공시가격 열람], 위택스(www.wetax.go.kr)</p> <p>□ 이의신청</p> <p>○ 접수기간 : 2011. 4. 29 ~ 5. 31</p> <p>○ 제출자 :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p> <p>○ 제출장소 :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청 세무과</p> <p>○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비치) 작성 제출</p> <p>○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시 부동산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p> <p>□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세무과(☎ 831-2875, 2883)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p>	<h3>방사능 비상시 행동 요령</h3> <p>○ 가급적 가족이나 건물 내에서 생활</p> <p>○ 외출 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샤워</p> <p>○ 외출 시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p> <p>○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 섭취 삼가</p> <p>○ 가족은 속사로 이동하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음</p> <p>○ 야채, 과일 등 채소류는 잘 씻어서 먹음</p> <p>○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 등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 최소화</p> <p>○ 방사능 낙진 시 우물이나 장독 등 뚜껑을 덮어 둠</p> <p>○ 임의행동 금지, 정부 지시대로 행동</p> <p>○ 전기와 가스, 수도꼭지는 잠그고, 구급약·담요·귀중품 등 챙기기</p> <p>방사능 낙진 떨어질때 대피요령</p> <p>신속히 현상 이탈</p> <p>비옷·우산 사용</p> <p>지하 집은 곳 대피</p> <p>방사능 물질·오염장소로부터 안전요령</p> <p>거리 멀수록 피해 최소화</p> <p>노출시간 적을수록 안전</p> <p>남·문크리프 벽 뒤로</p>	<h3>봄철 주의해야 할 감염병 예방법</h3> <p>봄철을 맞이하여 야외회, 현장학습, 음식물의 취급 부주의로 집단설사(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감기 및 안과질환 등의 발생이 우려되오니 손씻기, 음식물 익혀먹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을 예방합니다.</p> <p>○감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p> <p>- 비누칠을 하여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손으로 코나 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음</p> <p>- 손수건 또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는 "기침예절"을 잘 지키도록 함</p> <p>○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p> <p>- 유행성 이하선염은 접촉이나 비말(飛沫) 등을 통해 감염되므로, 집단생활로 발생 증가</p> <p>-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예방접종 미 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p> <p>○수두</p> <p>- 말하거나 재제기할 때 나오는 비말, 피부병변과 접촉하여 감염되며,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집단생활 방식을 위하여 환자는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딱지가 앓을 때까지 가정에서 안정 가료함</p> <p>- 외출 후엔 반드시 손발을 씻고 양치질하기 등 개인위생을 강화</p> <p>○유행성 눈병(유행성각결막염)</p> <p>- 전염력이 강하여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곳에서 집단 발병이 많음</p> <p>- 4월부터 발생이 증가하여 여름철 발생 빈도가 높음</p> <p>- 수시로 비누칠을 한 후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하며,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 것</p> <p>- 수건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물품으로 사용해야 함</p> <p>○수인성 전염병</p> <p>-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p> <p>- 식수는 끓인 물이나, 충분히 가열 조리된 음식만 섭취</p> <p>* 기타 문의사항 : 보건소 방역담당(☎ 831-3623)</p>
정수장명	관명정수장	K-water 사천정수장																																																													
위 치	관명면 정거리 산하기관	측동면 배관리 18																																																													
검사 항목(총58개)	수질 기준	수질 검사 결과																																																													
1 일인산염	100cfu/ml이하	0																																																													
2 총대장균	불검출/100ml	불검출																																																													
3 불소	1.5mg/L 이하	불검출																																																													
4 암모니아성질소	0.5mg/L 이하	불검출																																																													
5 질산성질소	10mg/L 이하	1.0																																																													
6 전류염소	4.0mg/L 이하	0.74																																																													
7 총트리할로메탄	0.1mg/L 이하	0.021																																																													
8 클로로포름	0.08mg/L 이하	0.016																																																													
9 경도	300mg/L 이하	44																																																													
10 수소이온농도	5.8~8.5	7.8																																																													
11 중금속총량	500mg/L 이하	101																																																													
12 철	0.3mg/L 이하	불검출																																																													
13 탁도	0.5 NTU 이하	0.22																																																													
14 냄새	이취 없을 것	적합																																																													
15 맛	이취 없을 것	적합																																																													
16 할로아세티라이드와 13개 항목	-	각 정수장별 불검출 및 수질기준 이하																																																													
17 대장균의 28개 항목	-	각 정수장별 불검출																																																													

# 제151회 사천시의의회 임시회 개최

## 추경예산안·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의결

사천시의의회는 지난 4월 12일 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151회 사천시의의회 임시 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과, 오는 6월 제1차 정례 회에 실시할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 등 5건이며,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도 포함되어 있다.

4월 12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 의하여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 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열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시의원 1명의 대표위원과 회계관련 전문지식 이 있는 민간인 3명으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다.

둘째날인 4월 13일에는 상임 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제1차 총 무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공유 재산관리 제1차변경계획안을,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천 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 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하 였다.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13 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틀간 2011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하여 소관 집행부서의 제안설명 과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실시하

였다.

4월 15일에는 추가경정 예산 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제2차 예 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 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제1회 추 경예산액 총 규모인 7,223백만 원에서 40백만 원을 삭감하여 추 경예산액은 7,183백만 원으로 수 정 의결하였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제 파악을 통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 정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마련하

였다.

4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개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 례안과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특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429,969 백만 원보다 7,223백만 원이 증 가된 437,192백만 원으로 편성 되었으나, 40백만 원을 삭감하 여 기정예산 대비 7,183백만 원 이 증가한 437,152백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마지막으로 2011년 제1차 정 례회에 실시할 2011년도 행정사 무감사 계획안을 상임위원회의 안대로 승인하였다.



사천시의의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151회 사천시의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 제150회 사천시의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내용

- 지난 제180호(4월)에서 계속됩니다.

### 여명순 의원 시정질문

마지막 질문은 삼천포 수산시 장(서부시장) 사용료 미납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삼천포 수산시장은 동지역 지 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 을 하는 시장으로 활어, 패류, 선 어, 건어물 등의 수산물을 직접 맛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내에 핫집센터가 자 리 잡고 있어 시장을 찾는 관광 객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서 령하게 회를 맛볼 수도 있는 서

부 경남의 대표적인 수산시장이 며, 우리나라 3대 수산시장 중 하나로 명성을 떨치던 시장입니 다.

이곳의 350여 점포에서는 이 러한 수산시장을 만들어낸 상인들이 새벽 부터 장사를 하며 생활터전 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상인들의 점포에 2009년부터 일년 항만사용료가

2억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항만법」상 항만시설을 사용 하는 자에게는 항만사용료를 부 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천포 수산시장은 2004 년 감사원 감사, 2008년 국토해 양부 감사에서 항만사용료 미납 건이 지적되었으며, 2008년부터 일 년 사용료 2억원을 부과하 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만청과 계약 한 시가 그동안 상인들에게 부 과를 하지 않아 2010년 10월 기 준으로 현재 미납액이 4억 1천 300만원입니다.

미납된 항만사용료를 지금 상 가들에게 묵둔으로 부과하게 되 면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들게 장사하시는 상인들의 부 담도 클 뿐만 아니라 반발도 심 할 것입니다. 상인들의 부담을 줄 이기 위한 감면방안은 없는 것 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들 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사천시에서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미뤄놓 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같이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미납될 경우 갈수록 연 체료가 부과되는 만큼 조속히 적 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 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이 삼천

포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국비 확보에 만진 을 기했고, 이에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 현대화사업 계획 안을 아케이드에서 2층 구조물 로 사업을 변경하면 더 많은 국 비가 필요합니다.

미납액으로 인해 삼천포 수산 시장 현대화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부 과될 항만사용료에 대한 감면방 안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구 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 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 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 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 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 본다면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써 우리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인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 점에서 테마가 있는 외국인 마을 을 조성할 계획을 검토하여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 지만, 다른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 례를 우리 시에 접목하여 미래지 향적인 사고로 접근한다면 우리 시도 분명히 성공하리라 믿습니 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 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010년 말 현재 11만4,148명의 주민이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 7,904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15.6%로 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 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1%로써 이 제 막 고령 사회에 진입한 초기 고령 사회에 머물고 있으나, 우 리 시는 이미 이 단계를 지나 초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 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에 비해 노인 인구가 증가 하기 때문에 노인 문제에 대한 각 종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 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 하여 개인연금이나 종신보험 등 을 통해 노후에 관심을 갖고 대처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 부분의 노인 세대는 그럴 여유가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가 있는 노인들은 자녀로 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노인들은 생활에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 니다. 그렇다보니 일할 기회만 있 으면 한 톨이라도 벌기 위해 노 려하는 노인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정 책에 따라 매년 노인 일자리사업 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만, 금년의 경우를 보면 시 전 체 노인의 2.4%에 불과한 435명 만 참여할 수 있고, 임금이 월 20 만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일할 욕구가 있는 노인들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 이 현실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의 직종 도 환경정비나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에 치우쳐 있어 개선이 필요 하다 할 것입니다.

인근 진주시는 물론 포장 등의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는 노인 일 자리작업장을 만들어 노인의 특 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 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사업을 찾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 바 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을 위해 우 리 시에서 운영비와 난방비 일부 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시가스가 공급 되고 있는 아파트 경로당들은 도 시가스 회사로부터 난방비를 무 상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만약 이 런 경로당에 대해 시에서도 보조 금을 준다면 이중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자연마을 경 로당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개선 대 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낮의 기온차가 심한 환경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건강 하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기 원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 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연관계로 답변자료는 게재하 지 못했습니다〉

### 조성자 의원 시정질문

총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 성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승호 의장님과 동 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 려하고 계시는 정만규 시장님이 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의 위 장전입 문제 등 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4조에 “모 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으며, 「주 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하면 주 민은 주소를 해당 거주지를 관 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법조문을 언 급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인구 를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해 장 학금을 주고, 두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우 리 시에 새로 전입해온 주민들 에게 우대인정과 무료 종량제 봉

투를 주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사 천시 860여 공무원 가운데 진주 등 다른 시·군에 거주하고 있 는 공무원이 200여명에 이 르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공무원은 실제 거주는 다른 시·군에서 하

면서 주민등록지만 실제 거주 공간이 아닌 우리 시의 시청, 읍·면·동사무소 등에 주민등 록을 해 놓았거나, 부모나 형제 자매 등 친척집에 주민등록만 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것은 아마도 공무원들이 자 녀교육 등으로 거주지를 다른 시 로 옮기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을 의식하여 주민등록지만 사천 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기업체 등에는 종사자들 에게 주소를 이전하라고 협조요 청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의 이런 거 모습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매년 읍·면·동 주민등 록 담당자들은 주민등록 사실조 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이런 부분을 발견하여 시 정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 직자의 자제가 아니라고 생각됩 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 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 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생 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가 인사상 불이익 없이 희망하는 곳으로 이 동과 승진 등이 이루어진다면 사 천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상 대적인 허탈감과 사기 저하가 우 려됩니다.

따라서 사천시에 거주하는 공 무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인사 정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는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려 올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관내 거 주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관내 위장전입이 인구 증가를 위 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면 정직 하게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이 이 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도시를 만 들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과의 협 조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중· 고 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 문제로 인근 진주 등으로 이전하여 거 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솔선수범하 야 하는 공직자의 자제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가 줄어 교부 세에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지라 도 시장님께서 투명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과 차별화된 인사 정책으로 시의 발전을 위하여 성 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신바 람 내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 성을 위해서라도, 인사에 있어 관내 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 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제 도적으로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낙뢰 안전 행동 요령

### \* 천둥·번개란?

여름철 적란운 속에는 수많은 물방울과 얼 음 알갱이들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양전기와 음 전기들이 있는데, 이 구름 속에 있는 양전기와 음전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꽃 현상을 번개 라고 한다.

또한 천둥이란, 번개가 공기 중을 이동할 때 번개가 가지는 매우 높은 열 때문에 공기가 급 격히 팽창하게 되는데, 이때 그 공기가 팽창하 는 힘을 이기지 못해 터지면서 나는 소리다.

### 낙뢰 예상도면

- 건물 안, 자동차 안,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 뉘싯대나 골프채 등을 이용하는 야외운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운동을 즉시 중단하시고 안 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를 잘 알아 둡시다.

### 낙뢰 칠 때는

#### 【산에서】

- 산은 낙뢰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지하시고 가능한 등산을 삼가합니다.
- 낙뢰는 높은 물체에 떨어지기 쉬우므로 정 상부에서는 낙뢰발생 때 신속히 저지대로 이동하세요.
- 낙뢰 발생 시 즉시 몸을 낮추고 움푹 파인 곳 이나 계곡, 동굴 안으로 대피하세요.
- 정상부 양벽 위에서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키 큰 나무 밑은 낙뢰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피하세요.
-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누어 놓고, 몸에서 떨어뜨리십시오.

#### 【야외에서】

- 평지에서 낙뢰가 칠대는 몸을 가능한 한 낮 게 하고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하세요.
- 평지에 있는 나무나 키 큰 나무에는 낙뢰의 가능성이 크므로 피하세요.
- 골프장에서는 골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골프채, 골프카트는 몸에서 떨어뜨리고 건 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하세요.
- 농촌에서는 삼, 콩, 팥, 트랙터 등 농기구는 몸 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낮게 하세요.
-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는 차를 세우고 차 안 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에 번개 가 치면 전류는 도체인 차 표면을 따라 흘러 타이어를 통해 지면에 접지됩니다.
- 뉘싯대는 뉘싯대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 낮게 하시기 바랍니다.
- 물가 또는 소형보트 주위는 위험하므로 떨 어지십시오.
- 펜스, 금속파이프, 레일, 철제난간 등의 전기 전도체가 되는 물건과는 떨어져 있으십시오.

#### 【가정에서】

- TV, 라디오 등을 통하여 낙뢰 정보를 파악 하고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세요.
- 집에 번개가 치면 TV 안테나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옥 내에서는 전화기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 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낙뢰 맞았을 때 조치

-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 구조해 내면 이름을 부르는 등 의식 여부를

- 살피십시오.
- 의식이 없으면 즉시 기도를 열어 호흡을 하는지 확인하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인 공호흡과 함께 심장마사지를 합니다.
-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합니다.
- 감전 후 대부분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 하기 마련입니다.
- 환자가 흥분하거나, 떠는 경우에는 말을 걸든지 침착하게 합니다.
- 사고가 등산 중이거나 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나더라도 절대 로 단념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 심 장 마사지 등의 처치를 계속해 주십시오.
- 설사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건전해 보여 도, 감전은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 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응급병원에서 진 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미취학 아동 시력 무료검진

## 사천시보건소, 5월 중 2차로 검진반 순회하며 검진 마무리

사천시 보건소는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시력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시력장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주기 위해 무료로 시력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력검진은 관내 미취학 아동 4,00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안내문과 그림시력표를 가정배부하여 부모가 직접 1차로 검진한다.

1차 검진결과, 이상이 있거나 추가로 검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는 보건소 검진반이 순회하여 2차로 검진해 주는 것이다.

또한 검진결과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교정치료와 치료기 제공과 전문의에게 정밀검사의

뢰와 치료를 우선하고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은 한국 실명예방재단에 의뢰하여 수술비를 지원해 준다.

영유아의 시력은 생후 3개월 정도면 물체를 인식하게 되고 만 4~6세가 되면 어른의 시력에 이르게 되므로 조기 시력검진이 매우 중요하며, 시력발달도 유아기 때 활발하게 이뤄지므로 이 시기에 시력검진을 통하여 눈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평생의 시력을 좌우할 정도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지난달 1차 검진을 완료하고 2차 검진은 5월중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순회하며 검진을 마무리하고자 검진반 편성과 아울러 검진 안내문을 배부했다.



사천시 보건소는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시력장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주기 위해 무료로 시력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보건소는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조기에 시력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시력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을 한 번 더 심어주게 되었으며, 눈을 자주 찌푸리거나 집

중을 못하고 산만하거나 책읽기에 싫어하는 아동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1독자 작성

# 인간과 예절

##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절인가

인간(사람)은 「지구」라는 혹성에 살고 있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동물이자 다른 동물들 특히 인간보다 덩치가 크고 힘도 센 동물들까지 길러서 잡아먹고, 식물은 억제재배까지 하는 등 다른 동물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못하게 구는 동물이지만 원숭이보다도 민첩하지도 못하고 사자나 호랑이처럼 힘도 세지 않으며 몸을 보호할 털도 적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신 의복과 침구를 만들어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아기가 길어져 부모의 보호가 없으면 생존과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같은 출발점에서 보면 여러가지로 연약한 구석이 너무나 많고 생활(삶)에 불리한 조건도 많아서 어디든 불꽃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다른 동물들보다 「두뇌가 월등히 발달되었다」는 아주 특이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火)을 발견하여 사용함으로써 추위를 막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갖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요리하여 먹으며 여러가지 금속을 발견하여 생활에 필요하고 편리한 여러가지 도구를 창작하여 활용할 뿐만 아니라 언어를 창작하여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다양한 경험들을 기록하고 지식을 축적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등 자연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것을 통제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산업을 발전시켜 삶에 눈부신 진보를 가져와 호화찬란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만물의 영장」이란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 지구상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나아가 인간은 이와 같은 두뇌의 발달을 바탕으로 하여 선천적으로 타고난 엄청난 대 표적인 세 가지 정신능력을 갖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지(智)·정(情)·의(意)이다.

「인간」은 「지구」라는 혹성에 살고 있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동물이자 다른 동물들 특히 인간보다 덩치가 크고 힘도 센 동물들까지 길러서 잡아먹고, 식물은 억제재배까지 하는 등 다른 동물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못하게 구는 동물이지만 원숭이보다도 민첩하지도 못하고 사자나 호랑이처럼 힘도 세지 않으며 몸을 보호할 털도 적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신 의복과 침구를 만들어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아기가 길어져 부모의 보호가 없으면 생존과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같은 출발점에서 보면 여러가지로 연약한 구석이 너무나 많고 생활(삶)에 불리한 조건도 많아서 어디든 불꽃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다른 동물들보다 「두뇌가 월등히 발달되었다」는 아주 특이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火)을 발견하여 사용함으로써 추위를 막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갖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요리하여 먹으며 여러가지 금속을 발견하여 생활에 필요하고 편리한 여러가지 도구를 창작하여 활용할 뿐만 아니라 언어를 창작하여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다양한 경험들을 기록하고 지식을 축적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등 자연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것을 통제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산업을 발전시켜 삶에 눈부신 진보를 가져와 호화찬란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만물의 영장」이란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 지구상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나아가 인간은 이와 같은 두뇌의 발달을 바탕으로 하여 선천적으로 타고난 엄청난 대 표적인 세 가지 정신능력을 갖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지(智)·정(情)·의(意)이다.

예절에 어긋남이 없이 도덕적 상황에 알맞고 인간다워야 기정에 선 가족들이 화목해질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안정되고 참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 가정이나 사회를 들여다보면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 준 부모를 유기하거나 부양을 거부하는가 하면 심지어 살해까지 하는 패륜적 행동을 하는 못된 자식들이 날로 증가하고 거의 매일같이 살인, 방화, 폭행, 성범죄 등이 자행되고 있지 않은가!

인간의 가정이나 사회가 유지되는 근간은 바로 「위계(位階)와 질서(秩序)」인데 오늘날은 이것이 여지없이 무너져 가고 있음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랑과 진실이 실종된 지 너무 오래야. 왜 왜 그럴까 말도 안돼」라고 한 어느 가수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본능적인 효성, 교만성, 시의심 등을 인간적인 사고와 인내로 자제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안정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겠다.

셋째 예절의 표현이 격식에 알맞아야 올바른 예절이 된다. 관혼상제의 진행순서나 국경일, 기념일 기타 예식의 순서는 바른 예절을 나타내는 격식이다. 예를 표현하는 순서가 뒤바뀌거나 그 표현방법이 생활에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실례처럼, 도덕적 행위의 순서, 즉 격식(格式)인데 올바른 예절이 되려면 우리들의 말씨와 행동 및 격식이 상대방에 따라 체계(상황)에 알맞아야 한다.

첫째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말씨 그 자체뿐만 아니라 말하는 태도나 버릇이 도덕적 상황에 알맞고 옳곧아야만 한다. 즉 바른말, 고운말, 존댓말 등을 당연한 상황에 따라 바르고 알맞게 써야 한다. 우리들이 쓰는 모든 말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고, 말이 참되고 바르고 아름다워야 사리에 맞으면 우리들의 삶과 세상도 참되고 아름다워진다.

「인간」은 타고난 거짓말쟁이이고 대화의 3분의 1이상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악의에 가득찬 거짓말이나 인간적 도리에 맞지 않은 말은 삼가야 하지 않겠는가!

「남편을 오빠라고 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보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젊은 사람이 늙은이를 보고 늙은 것이 버릇없다」라고 하는 것 등은 인간적 도리에 맞지 않은 말이다. 「화성향(性向)이 달라지게 된다. 「의(意)란 경험에서 얻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관련된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심해서 실행에 옮기는 능동적 활동능력」 즉, 「의(意)」를 말하는 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대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게 하는 근본이 되는 정신작용으로서 인간 개인의 본성(本性)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러한 세가지 정신능력이 없었다면 인간도 자연 상태(자연현상)속에서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하에서 본능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다른 동물들처럼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도 「교육」이란 것을 받지 않고 「경험」도 없는 자

# 하반기 방역소독 방법 안내



사천시에서는 2011년 하절기 방역소독을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이며 선진화된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합니다.

분무소독 방식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경유를 태워 내보내는 연막소독 대신 약제와 물을 혼합 사용하여 가열해 내뿜는 방식으로 비탄 경유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절감 효과 및 건강에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소독 방법입니다.

개선된 방역소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며 연기는 없으나 소독효과가 뛰어난 분무소

독 방법으로 대부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절기 방역소독】

### ○ 방역소독 방법 및 시간

구 분	지 역	방 법	시 간
연막소독	별두리	차량방역소독	오전 05:00-07:00사이 오후 18:00-21:00사이
분무(연무)소독	도심지	차량,오토바이, 리어카 등	오전 07:00-10:00사이 오후 16:00-19:00사이

### ○ 읍·면·동별 방역소독

지역별	방역소독 방법	
	분무(연무)소독 지역	연막소독 지역
동지역	동서, 선구, 동서금, 벌음, 향촌, 남양동 ※ 용강, 남양 양계단지 포함	-동서 : 삼안-산분령-영북원 -선구 : 좌상-좌동, 새고개-신지 -벌음 : 용두 -향촌 : 남평-율곡, 신항-상-하공지 -남양 : 죽전, 죽계, 진동, 구미, 광포, 중촌-노래, 문화-백천
읍·면 지역	-사천읍 : 정외, 선인, 평화, 수석, 사우리 -정동면 : 고읍리 -관양면 : 상내리, 남문외리 -관평면 : 정곡리(원사시장 주변) -서포면 : 구평리 ※ 별두리 지역 : 연막소독 병행 실시	-사천읍 : 복사리, 용당리 -정동면 : 고읍리 제외 전지역 -관양면 : 상내리, 남문외리 제외 전지역 -관평면 : 정곡리 제외 전지역 -서포면 : 구평리 제외 전지역 -사남면, 용현면, 죽동면 : 전지역

○ 기 간 : 2011. 5. 2 ~ 2011. 10. 31까지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무료 지원

사천시 보건소는 저소득 계층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난청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신생아 무료 청각선별검사를 하고 있다.

대상자는 사천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 중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로 출생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카드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무료검사 쿠폰을 제공한다.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사천지역은 삼천포 제일병원, 진주지역은 가야 자모병원, 보람 소아청소년과의원, 진주미래여성병원, 진주 고운 여성의원, 경성대학교 병원(1, 2차) 등이다. 시 보건소는 선천성 난청은 태

아 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선천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질환으로 신생아 1천 명 당 1~3명꼴로 발생하고, 청각선별검사를 통해 난청 조기 발견과 함께 재활치료 등으로 언어장애와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출생 후 2~3일, 늦어도 1개월 이내 검사를 하고 이상 소견이 있는 신생아는 난청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하여 3년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난청사업에 대한 보호자들의 인지도 향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 사천시 보건소와 함께하는 이동 금연클리닉

사천시 보건소는 지난달 5일부터 올 연말까지 9개월 동안 공군 제3훈련비행단 부대원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통해 건강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 장병을 대상으로 휴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희망자에게는 이동 금연클리닉 등록을 통해 금연상담과 약물·행동요법, 니코틴 보조요법, 금연방법과 금단증상 대처방법, 일산화탄소 측정 등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금연 실천운동

을 하고 있다.

현재 전체인원 300명 중 금연클리닉 사전 참여자는 약 50명으로 6개월 후에는 금연 성공자에 대한 추후관리 금연유지 프로그램(금연 성공기념품, 치료 스킨링 쿠폰, chest-X-Ray, 금연침시술)을 지원하고 성공사례 발표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한편 시 보건소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건강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휴먼자의 금연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건강한 마을 만들기』 운영

사천시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실현을 위해 오는 7월까지 건강을 가꾸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운영한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는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고의 건강마을을 만든다는 것으로 상반기 7개소와 하반기 4개소를 선정하여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바쁜 농사일로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는 농촌과 건강관련 서비스 이용 여건이 열악하고 시설이 부

족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의 건강 인식도 조사 및 건강수준검사를 시작으로 운동과 영양, 금연, 절주 등 건강행태개선 교육과 건강 체력관 운영, 웃음치료 건강레크리에이션, 한방 프로그램 등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양하고 유익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지원으로 개인의 건강지식을 높여 자기 관리능력을 길러주고 건강친화적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 마을 전체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사천읍 사천읍시민안전봉사대 안전사고 예방 홍보



지난 4월 11일 사천읍 시민안전봉사대(대장 장정대)는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봄철 황사,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천읍 일원에서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다.

## 정동면 정동면자원봉사회 도배 봉사활동 실시



정동면 자원봉사회(회장 이정옥)는 지난 3월 29일 도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택이 노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관내 대산마을 김성주(90세), 풍정 마을 이경분(80세) 할머니댁을 선정하여 정동면 자원봉사회 회원 20여명이 벽면도배와 장판, 싱크대, 전기선 및 형광등을 교체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했다.

## 깨끗한 환경 가꾸기 정화활동 펼쳐

정동면 자연보호협의회(회장 김남무)는 지난 4월 21일 사천강에서 깨끗한 환경 가꾸기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창수 정동면장을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 단체, 민면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1년 깨끗한 환경 가꾸기 기념식 개최 후 사천강(장산교에서부터 수청교까지)에서 겨우내 방치된 행락쓰레기 일제수거(2톤) 및 불량 홍보물(6점) 정비를 병행 실시해 사천강 살리기에 앞장섰다.

## 사남면 관내 초등학교 총동창회 개최



가천초등학교(회장 김식일, 제33회, 4월 10일), 초전초등학교(회장 신성철, 제23회, 4월 10일), 삼성초등학교(회장 하대섭, 제15회, 4월 10일)에서는 총동창회 및 한마을 대추제를 개최하였다. 선배와 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날을 회상하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우정과 정담을 듬뿍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인조잔디구장에서 펼친 제15회 삼성초등학교총동창회는 제19회 졸업생(회장 강운순)이 주관이 된 물론 한마을 축제에 참가한 경향각지의 동문들은 농촌지역에 조성된 인조잔디 구장을 칭송하면서 마음껏 기량을 과시하기도 했다.

##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남농업협동조합

사남농업협동조합(조합장 강득진)은 지역민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돕고자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노래교실, 12시부터 스포츠댄스교실을 운영하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농사일로 바쁜 일과중에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노래교실과 스포츠댄스교실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신명나는 장을 제공하고, 건강교실에서는 농사일로 얻은 만성병 치료를 위해 유명한 의사들을 초청하여 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 용현면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 가져



자연보호용현면협의회(회장 박학진)는 지난 3월 30일 용현면 조직단체회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해안도로변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제16회 와룡문화제 행사를 앞두고 전국에서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1톤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박학진 회장은 이날 대회를 통해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을 후대에 물려주는 소중한 자산으로 항상 가꾸고 다듬어야 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정신을 계승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축동면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



축동면(면장 조인덕)은 지난 4월 8일 탐리 소재 화당산 체육공원에서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자연보호축동면협의회 주관으로 14개 단체 150여명이 참가해 체육공원 생활쓰레기, 조림지 비료 및 퇴비주기 등 자연정화 활동과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 활동을 하였다.

## 곤양면 곤양면민체육대회 개최



제25회 곤양면민체육대회가 4월 23일 곤양초등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날은 그동안 정리 단위로 팀을 구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별 4개 팀 동부, 중부, 읍내, 서부로 구성했으며,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로 어르신 낚시, 막걸리 마시기, 고무신 던지기, 노래자랑 등 어르신들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을 추가함으로써 주민과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냈다.

## 곤양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행사

곤양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행사가 동문 및 주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17일 개최됐다. 4월 16일 전야제를 비롯하여 기수품 동창회, 은사

님 초대 및 초청가수 공연, 조형물 커팅, 기념식수, 타임캡슐 매설, 운동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곤양초등학교는 1911. 6. 1 사립 개양학교를 곤양보통학교로 인가받아 1946. 6. 20 곤양국민학교로 교명 변경한 후 1995. 3. 1 서부초등학교를 통합하고, 1999. 9. 1 건흥초등학교 및 동명분교장을 통합한 후, 2011년 제98회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졸업생 수가 9,419명에 달하는 등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학교다.

## 곤명면 송비산악회 봄 산행



곤명면 송비산악회는 4월 2일 전라남도 광주시 무등산에서 봄 산행을 가졌다. 연중 2회 산행을 주축하는데 올해 첫 번째 산행으로 이날 산행은 산악회 회원과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안화영 송비산악회 회장은 "산행을 통해 봄 정취를 느끼고 산악회 회원과 지역 주민들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 곤명초등학교 총동창회 및 가족대잔치 개최

곤명초등학교 제19회 총동창회 및 가족대잔치가 지난 4월 24일 곤명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축구, 배구, 노래자랑 등 다양한 경기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동문들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했다.

주관 기수인 제51회 강용근 회장과 한원정 총동창회 회장은 "총동창회를 통해 동기, 선·후배를 만나 우정과 추억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와 전통을 자랑하는 곤명초등학교의 화합의 축제 한마당이 된 뜻깊은 날이 되었다."고 말했다.

## 서포면 서부 3개면 이장협의회 및 직원간 단합대회 개최



지난 4월 7일 서포면이장협의회(회장 백승국)는 서포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곤양·곤명이장협의회회원 및 직원 70여명을 초청하여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구, 축구 등 경기뿐만 아니라 음료 및 다과를 준비하여 참여자 모두 오래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였다.

2000년도 초반부터 인근 농촌지역인 지역간 화합 및 친목을 도모하고자 시작한 이 행사는 그동안 활발한 정보교류의 장으로 확대되어 왔다.

## 금진초등학교 총동창회 및 기별 체육대회 열려

지난 4월 10일 금진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총동창회 및 기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향우회 및 인근 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건전한 스포츠 교류를 통하여 친선을 도모하고, 음료와 다과를 즐기면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이제는 흔적만 남은 교정에서 아련한 학창시절의 우정과 추억을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동서동 "어르신과 아동의 아름다운 동행(만남의장)" 열려

동서동주민센터(동장 노영주)와 동서동주민자치학습위원회(위원장 정홍찬)는 4월 21일 『어르신과 아동의 아름다운 동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어르신과 아동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위원 3명, 어르신 및 아동 각 1명을 한 조로 구성하여 각 조별 소개와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친밀감을 쌓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참여한 어르신과 아동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하여 위원들과 훈훈한 정을 나누었고, 만남 후 각 조별 위원들의 책임 하에 어르신과 아동을 안전하게 귀가시켜 산뜻한 시작을 일했다. 향후 각 조별로 「행복플러스 바구니」를 만들어 매월 1회 이상 어르신을 방문하여 생필품과 간식 등을 지원하고 노래불러드리기, 안마해드리기, 심부름해드리기 등 미션을 수행할 계획이다.

## 바르게살기위원회 국기달기 홍보 운동 전개



동서동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문정열)는 지난 4월 13일 주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실천을 중심으로 국기달기 홍보 캠페인 및 국기꽃이 무료 설치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 18명이 참여하여, 6인 1조로 3팀을 구성하여 국기꽃이 없거나 노후화된 20세대에 국기꽃이를 무료로 설치하였다. 아울러 국기관매를 통해 평소 국기를 구하기 어려웠던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 선구동 어려운 조손가정에 청결한 주거 환경 제공



선구동 자원봉사협의회(회장 윤덕이)와 선구동주민센터(동장 이영재)는 지난 3월 24일 관내 조손가정을 방문하여 도배 봉사활동 및 집안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 활동은 봄을 맞아 겨울 동안의 습기로 인한 벽지와 장판에 곰팡이가 피는 등 집안이 지저분한 세대를 선정하여 도배와 장판 교체 및 집안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고령의 조모와 어르신자들에게 청결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전기 시설 및 가스 안전 점검과 가스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홍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 시민안전봉사대 안전 캠페인 실시

선구동 주민센터(동장 이영재)와 시민안전봉사대(대장 배성광)는 지난 4월 8일 선구동 중앙시장 일원에서 시민안전 봉사대원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봄철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황사에 대비한 주민 행동요령과 각종 시설물 관리방법을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시장내 노점상과 재래시장 이용객들에게 황사대비 식품취급 및 안전관리 요령을 설명하는 홍보 전단지 및 물티슈 200개를 나누어 주는 등 건강 생활 의식을 고취시켰다.

## 동서동 동국대청소를 통해 새봄을 맞은 동서동

동서동 주민센터는 지난 4월 16일 겨우내 방치된 쓰레기 일제 수거 차원에서 민간 합동 새봄맞이 국토 대청소를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6개 기관 및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가운데 삼천포교~팔포교간의 하천 및 도로변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김법권 동서동장은 "이번 국토대청소를 통해 우리 동이 새봄을 맞았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 및 자원단체조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동서동 동국대청소를 통해 새봄을 맞은 동서동



동서동청년회(회장 장재영)는 시와 동조직원회 및 뜻있는 분들의 후원으로 4월 24일 서동동 회집일원에서 70세 이상 노인 500여분을 모시고 제13회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날 경로잔치는 평년과 달리 강당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현황을 지양하고 특별로 배정된 회집에서 생선회와 식사를 대접하고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경로행사에서는 혼자서 몸으로 36년간 노모를 정성으로 봉양해 온 이생규(남, 63세)씨가 효자상을, 어린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고 병환중인 시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해 온 이지연(여, 37세)씨가 효부상을 수상하였으며 수상자에게 시상금과 건강선물셋트를 수여하고 경로효친 상상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벌용동 삼벌회 제23회 효자효부표창 및 경로잔치 가져



삼벌회(회장 김인갑)는 지난달 18일 삼천포체육관에서 사천시 관내 동지역 65세 이상 노인 1,500여명을 모신 가운데 제23회 효자효부 표창 및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시상식에서는 용강동 조순옥(여, 53세)씨와 동동동 장연심(여, 48세)씨가 효행상을, 죽림동 박삼태 할머니(97세)가 장수상을 받았으며, 이순석 할아버지(91세)와 서정순 할머니(72세)가 장수혜로상을 수여받았다.

2부 행사에서는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다과 등의 오찬행사와 사물놀이 공연, 각설이 타령, 초청가수 노래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진행되었다.

삼벌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젊은 청년들이 뜻을 함께하여 지난 1987년 창립한 청년봉사단체로 올해로 24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해마다 경로위안잔치, 독거노인 연탄배달, 김장김치 나눔사업, 장학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자연보호벌용동협의회 깨끗한 환경가꾸기 활동 펼쳐

자연보호벌용동협의회(회장 황일명)는 지난달 6일 '벌용동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의 일환으로 와룡마을 편백조림지 퇴비 및 황토 거름주기과 와룡천 정화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과 자연의 소중함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보호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였다.

## 향촌동 자매결연동(광주 계림1동) 단합행사 가져



향촌동주민센터(동장 강연주)는 지난달 8일 자매결연동인 광주 동구 계림1동과의 우호 단합행사를 가졌다. 매년 양 지역 주민자치학습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개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양지역 주민자치위원 및 조직단체장들을 포함한 70여명이 각산 등반 및 와룡문화제 행사장인 선진리성 일대를

관람하여 우호를 다졌다.

양 지역은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년 상호간 선진리성 벤치마킹을 비롯한 우호 단합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지난 2006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 영·호남 자매결연 표창을 받은 바 있다.

## 향촌동민 가족 걷기 행사 가져

향촌동주민센터(동장 강연주)는 지난달 30일 동주민센터에서 동민가족걷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간단한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출발하여 향촌들녘을 잇는 산책로를 따라 이어졌으며 주민 50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향촌동체육회(회장 김만수)가 주관한 이 행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4회째 향촌동 대표 체육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많은 경품들을 준비하여 참가자들이 경품 수령의 즐거움을 더했다.

## 남양동 후손에게 빌려쓰는 자연, 깨끗하게 물려 주어야



남양동주민센터(동장 조현문)는 3월 25일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깨끗한 남양동 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

남양동 자연보호협의회(회장 임두범)가 주관하고 남양동 산하 전 조직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와룡산 등산로와 광포 해안면, 남양동 관내 주요 도로변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10톤 정도를 수거하여 새봄을 맞아 사천시를 찾는 많은 외래 상춘객들에게 깨끗한 관광도시 사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 남양동 시민안전봉사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남양동 시민안전봉사대(대장 정진균)는 관내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등 각종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5까지 취약가구 21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기시설 노후 부품 교체 및 가스시설 점검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수해대상가구에 화재예방을 위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 재난취약가구 화재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우주항공소년 또독이의 항공 이야기-89)

## 수상 비행장(1) - Water Airport

비행장(Aerodrome)은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한정된 구역을 말한다. 공항(Airport)이란 항공기가 이착륙 할수 있는 데 필요한 시설과 더불어 항공기를 격납, 정비, 점검,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말하며, 비행장을 관리하기 위한 건물·시설 등 항공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이 이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비행장을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에 이용하는 육지나 수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육상비행장, 육상헬기장, 수상비행장, 수상헬기장, 육상헬기장(선상헬기장), 해상구조물헬기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상비행장(Water Aerodrome, Water Airport)은 수상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진 물 위의 일정한 구역(수상 구역)을 의미한다. 수상 구역은 수상비행기의 이수, 착수, 이동, 정비 등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된 구역으로서 수상비행장 내의 착륙대, 유도수로, 선외수역, 정비장 등을 포함한다.

수상비행장도 일반비행장과 같이 비슷한 공항 시설이 필요하다. 수상비행장은 착륙대와 활주로, 유도로는 수면이 대신해 주고 있으며, 주기장(정박장), 경사대, 탑승로(탑승교), 관제탑, 레이더, 무선송수신 장치, 항공등화, 착륙유도설비 등도 두루 갖

추어야 하고, 비행기를 보관하고 운용할 격납고도 필요하다.

수상비행장 설치 비용은 설치 장소에 따라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박장, 경사대, 탑승로, 오염 방지시설 등 최소한의 기본 시설만 있어도 가능하다. 반면 하천의 경우에는 하절기 강우 시에는 항공기의 계류 시설이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상비행장으로서의 적합한 지리적 조건은 후미(inlet), 만, 호수, 도서지역으로 도로, 철도 등 육상 교통이 불편하거나 개발되지 않은 곳으로서 관광지, 소규모 도시, 주변도시를 잇는 단거리 노선에 알맞으며 무엇보다도 자연 환경 훼손이 적은 곳이

여야 한다.

수상비행장은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남태평양 등에서는 이미 널리 보편화된 지역이 많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운영 중인 수상비행장은 없는 실정이다. 수상비행장은 주로 미국 북부지역, 캐나다, 남태평양, 운용할 격납고도 필요하다.

3면이 바다이면서도 섬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상비행장은 앞으로 항공수로 부족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육상공항 건설이 곤란한 지역과 강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 할뿐 아니라, 항공관광객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 도시, 주변도시를 잇는 단거리 노선에 알맞으며 무엇보다도 자연 환경 훼손이 적은 곳이

김형래/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인생을 새로 산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먼저 할까?

오랫동안 빙마와 싸우다 희망이라는 걸 발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부도와 좌절의 아픔을 겪다가 꿈을 발견한 사람, 아름답고 달콤한 사랑을 하다가 실연의 상처를 싸매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 각각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의 색깔대로 삶을 살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롭게 시작 하겠지.

나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부모님께 감사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심을...나에게 물어본다. 세상살이 어찌 좋은 일만 있단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신은 인간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준다지 않은가.

내 나이 스물 넷이던 날 내게도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철부지 10대도 있었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양 교만하며 도도하게 살았던 30대, 남들한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런 불행이 하며 내 삶을 꼬집어 결코 꿈이 아닌 걸 현실인 걸 확인하던 40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안개 속을 우왕좌왕 헤메다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 했을 때 내 자신이 어찌나 귀하고 고마운지 꼭 안아 주고 칭찬해주며 사랑해 주고 싶었다. 내 자신에게... 우리네 삶

속에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안개는 항상 주위를 맴돌고 있음.

이 시간에도 안개 속에 갇혀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히 말하고 싶다. 안개는 걷힌다고, 짙은 안개가 걷힐때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과 세상의 풍경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마운지 우리 잠시 안개 속을 헤맸을 뿐 그 안개 속에 사랑하는 가족들, 동지들, 때론 적들 생활의 터전 매일매일 접하며 살았던 모든 사물이 안개가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낼 때 어찌나 귀하고 소중한지 사랑스러운지 손을 흔들며 지금을 새로운 기분으로 살고 있다.

누가 나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너무 너무 행복 하다고.

나이를 먹어 간다는 것. 나쁜 것만도 아니다. 나이의 숫자와 무게만큼 느끼는 행복도 크다. 주름진 얼굴, 튀어나온 배, 젊은 사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런 불행이 하며 내 삶을 꼬집어 결코 꿈이 아닌 걸 현실인 걸 확인하던 40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안개 속을 우왕좌왕 헤메다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 했을 때 내 자신이 어찌나 귀하고 고마운지 꼭 안아 주고 칭찬해주며 사랑해 주고 싶었다. 내 자신에게... 우리네 삶

여유, 포용력, 가진 것 많아서 걸 현실인 걸 확인하던 40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안개 속을 우왕좌왕 헤메다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 했을 때 내 자신이 어찌나 귀하고 고마운지 꼭 안아 주고 칭찬해주며 사랑해 주고 싶었다. 내 자신에게... 우리네 삶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맙

고 귀하게 여겨진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 없다. 나는 손을 흔들며 내 나이지만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내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 한사람 한사람이 너무 고맙고 귀하다. 내 가족같이 정겹다. 건강 관리 열심히 하여 호호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웃과 정을 나누고 싶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좋은 계절에 아직까지 아롱아롱 손짓하는 계절. 두꺼운 옷도 벗어버리고 집 근처 가까운 들이나 산, 뱀죽이 고개를 내미는 새싹들, 겨울에 캄캄한 땅속에서 얼마나 갑갑했을까. 난 새싹에게 말하련다. 반갑다고, 매서운 추위 잘 견디었다고...

여름 푸르른 나무들, 매미들 합창할 때 졸졸졸 흐르는 냇가에 걸터앉아 발을 삼켜서 담구며 물속에 비치는 노년의 내 모습에 빙그레 웃어 보인다. 가을이면 푸르른 나무들이 저마다의 울긋불긋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자태를 뽐내겠지. 누가 그랬을까? 나이가 들면 살아있는 세월의 추억을 먹고 산다고 이 세상 소풍 즐기다가 자연의 섭리대로 다른 세상에 소풍갈 때 까지 최선을 다하련다. 사랑을 아끼지 않으려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나누며...나이는 먹는게 아니고 익어 가는 것 아닐까...

김경자/향촌동

### 삶의 감잡이

인간이 귀 두개와 혀 하나를 가진 것은 남의 말을 잘 듣고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함이다. 옛날부터 말이란 것은 반드시 마음에 있어야만 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요, 실질을 하는 자도 반드시 말이 먼저 있으면 법도 없다.

말은 인간의 사상을 장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말해야 할 때에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에 말하지 말라. 한번 뱀은 말을 다시 주위 담을 수가 없다. 사람은 언제나 행동할 때보다는 입으로 말할 때 더 대답해진다. 말이 많은 것이 재기(才氣)의 지표는 아니다.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가시 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 둘 수 있다. 마음에 품고 있던 말을 해 버리면 무거웠던 가슴도 가벼워진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그 자신을 비판한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말 한마디가 남 앞에 자기의 초상을 그려 놓는 셈이다. 남에게 또 남의 일에 대해서 말을 삼가야 한다. 말은 날개를 가지지만 생각하는 곳으로 날아가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쁨은 더 많아진다. 때는 흘러 없어지지만 한번 튀어나온 말은 영구히 뒤에 남는다. 사랑, 원한, 삶, 죽음, 충실, 비방과 같은 그 모든 맛있는 말에는 각각 반대되는 내용과 여러 가지 애매한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다.

말은 풍부한 경험을 표현할 수 없게 되어서, 가령 버스 안에서 말하는 가장 단순한 한 토막의 이야기도 절벽에 맞부딪치는 말처럼 들릴 때때이다. 말은 인간

### 말(言)

의 사상을 장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말해야 할 때에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에 말하지 말라. 생각을 표현할 때 말수가 너무 많으면 그 생각은 직설해 버린다. 잘 생각하지도 않고 하는 말은 겨누지 않고 총을 쏘는 것과 같다. 단 한마디라도 잘못 받아 들 여지면 10년 뒤는 공로도 잊어진다.

말이란 마스터 할 것이지 개조할 것이 아니다. 원래 인간의 의사 전달 수단으로 생겨난 "말"의 그 기능이 크게 늘어 이제 본심을 은폐하는 연막으로 사용된다.

말이란 사회의 공유재(公有財)이지만 지극히 미묘한 것이어서 몹시 부정을 타는 듯하다. 본심 좋은 말도 너무 속되게 남용하면 곧 헛고 때 묻어 입에 울

리기 초차 꺼림칙 해진다. 하고 싶은 말이랑 더러운 마음에 담아두고, 더러운 바위에 날려 보내며 그 일부만을 전한다. 그리 고 이 방법이 결국 졸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사람이 말을 참는다는 일은 밥을 굶는 것 이상으로 고역스런 일이다. 말은 한 사람의 입으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말 하려는 것이 있거든 그 말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나 제 자신을 평정하고 선량하고 사랑 깊은 사람이 되고 싶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평정을 잃고 악을 느끼며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흔들릴수록 말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김형태/사천읍

## 각산이 힘들면 망산으로 오세요

올 겨울은 다른 해 보다 유난히도 추워서 쫘쫘하지 않고 있다. 봄이 겨울을 밀어 내고 망산에 지리할 즈음에 찾게 되었다. 이곳 망산은 내가 자주 찾는 곳이다. 집에서 가까운 산이라 찾아가기 편한 곳이고, 오르기에 힘들지 않아서 나에게서는 아주 안성맞춤인 산이다.

사계절이 뚜렷하여 봄이면 벚꽃들이 겨우내 피던 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고, 여름이면 싹 돋아나고, 가을이면 노란 잎을 단은 행나무와 검붉은 단풍이 온 산을 뒤덮어 지나는 이들을 불렀고 쉬어 가게 만들고, 겨울이면 하얀 맨 살을 드러낸 나무들이 하늘을 경배하듯 두 팔을 벌리고 성직자의 자세로 서 있고 쪽뽕은 해송은 추위를 참으며 겨

울을 보듬고 있다.

아름다운 조화를 잘 이루어 놓은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면 섬과 육지를 연결 해 주는 창선-삼천포 대교가 섬과 섬 사이를 솜뭉치듯하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남해의 창선도와 손잡고 있고, 잔잔한 물결 따라 뱃고동 소리 들려오는 아늑한 삼천포항이 전개된다.

서로는 단독 주택들이 이마를 마주대고 정답게 아침 햇살을 맞으며 조용한 오늘을 열고 있고, 남으로는 삼천포화력 발전소가 그 위용을 자랑하며 주변의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삼천포를 자랑하고 있으며 한쪽의 동양화를 펼쳐 놓고 있다. 동으로는 와룡산 정기 받은 고층빌딩들이 즐비하고, 북으로는 4차선 도로가 더 넓은 세상을 향

해 시원스럽게 열려 있음을 볼 수 있는 공원이었다. 다시 말하면 삼천포를 한 바퀴 돌아 볼 수 있으며 조용하고, 아늑하고, 살기 좋은 곳을 느끼보게 하는 공원이었다.

"각산이 있어 이곳 삼천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행운이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까 행복한 걱정을 하게 된다." "각산이 있어 이곳 삼천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행운이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까 행복한 걱정을 하게 된다."

각산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가팔라서 유산소 운동에는 좋은 곳이다.

힘에 부치는 분들은 이곳 망산으로 오시라고 귀엣말로 살짝 말씀드리고 싶다. 높지 않아서 좋고, 잘 이용하면 각산보다 못하지 않는 운동효과를 낼 수 있어 좋다.

일단 둘레 길로 한 바퀴 돌고, 가파른 언덕길로 오르고 내리는 지형을 발휘해서 몇 바퀴 돌고 등에 땀이 약간 맺히는 느낌을 맛 볼 수 있을 때 정상에 올라 등나무 둘레를 몇 차례 조깅하고 시설물을 이용하여 근력운동을 하면 약 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한 시간의 투자가 상큼한 남해 바람의 일렁임에 따라 오늘의 아침을 건강하게 열게 될 것이며 미래의 행복을 가져 줄 것이 분명하다.

각산에 오르기가 힘들다면 망산으로 오시라고 권하고 싶으며, 이 지방을 찾는 관광객에게 눈꽃 내리듯 내리는 벚꽃잎 맞으며 한 눈에 아름다운 삼천포를 품은 시간엔 볼 수 있는 비경으로 홍보하여 보심이 좋을 까 싶다.

이윤식/선구동

## 조국사랑은 독도에서부터

요즘 연일 보도되는 일본의 대재앙 앞에 한일 우호에 양속이 되어온 독도를 들춰서 씩 위태한 일은 못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대재앙 앞엔 위로와 용기를 주는 반면, 자칫 망각하기 쉬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고히 상기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세기 전 2차대전 패망 후에도 그랬듯이 지금 일본은 내심 <조선이 조심하라. 일본은 다시 일어난다.>고 외치고 있는다고 누가 잠망 하겠는가? 예컨대 작년 3월 26일 이즈음은 나라가 천안함 사태로 침몰

해 있을 때도 일본은 어떡했나. 소위 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네 영토이며, 더구나 한국이 불법적으로 한 것이라고까지 하지 않았는가.

국력면에서 월등 앞선 일본이다 보니 철없는 아이들에게까지 어겨지로 세뇌 교육을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그러기에 일본이란 나라는 늘 망령에 사로 잡혀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것만 봐도 언제 어떤 형태로 또 다시 우리의 조국을 가슴에 천벌을 지필 지도 모르니 자나 깨나 불조심

하듯, 앉으나 서나 독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육현실은 대입이 삶의 전부인양 국어, 영어, 수학만 고 나라의 실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일깨워 줄 국사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청소년들 사이에선 독도에 대한 당위성에 혼란을 초래하여 독도가 진정 우리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긴가민가 하는 가하면, 아닌 데 아닌 데 고개를 가웃거리기도 하고 더욱한 심스런 친구는 우리 것 맞느냐

고 되묻기도 한다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되겠는가!

참으로 역장이 무너지고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의 영원한 영토의 꽃이며, 국난을 밝히는 촛불이며, 보물 중에서도 가장 값진 보물인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고귀하다고 외쳐대들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의 당위성과 독도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한 순간 약육강식의 땅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잊어서는-안 될 것이다. 독도의병부선대장 박영춘/부산시 북구

### 지심도(地心島)

동백들의 만아하고 고운 자태에  
봄맞이 나온 이방인들 발걸음 멈추고  
초록의 푸른 숲 하늘을 덮어  
원시림의 그 자태 고고하다.

용틀임 하는 천 년의 동백나무 오솔길에  
쾌양도 울고 간다.

바람에 담은 갯배의 향기에  
갈매기 놀란 가슴 울음보 러트리고  
기암괴석 절경 따라

흰 거품 토해내면  
나들이 부푼 꿈에 들떠있는 마음  
은통 흔들어 놓는다.

나분점/정동면 보건지소

### 장독대에서

햇살 고즈넉이 내려앉은 양지쪽에  
이슬 머금은 연꽃아!

맨드라미, 봉숭아 웃음꽃속에  
기쁨은 석류처럼 영롱하고  
달빛, 별빛의 속삭임속에  
아름은 기러기 되어 날아가고  
하이얀 천사의 노래 같으면  
외로움 식혀서 고운 진주피리

매물은 행주치마 자락에  
사랑의 샘물이 되어 솟는다

주름진 어머니의 거울이여!  
너 속에  
잊혀져 가는 내 고향이 아련하게 보이든구나

강명업/동금동

#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사천 알려

## 대구전시 컨벤션 센터서 지난달 15일부터 4일간 박람회 참가

항공우주산업과 수려한 해상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사천시가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대구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제9회 대구·경북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사천 관광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이번에 개최된 대구·경북 국제 관광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후원하는 국제 관광박람회로 국내외의 210여 업체 기관과 단체가 세계 35여 나라에서 참여하여 연인원 7만여 명의 관광객이 참가한 박람회다.

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산업과 한려해상 경관이 어우러진 삼천포대교를 형상화한 이미지에 사천 세계타악축제와 경남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행사 홍보를 관광 부스에 게재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매일 홍보 부스에서는 영상물을 방영하고 세계 타악축제와 항공우주엑스포 등 행사 홍보와 사천관광 소개 등 홍보전단지 배부하였으며 참가자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해 사천관광을 심어주기 위해 "사천을 바로 알아!" 열전퀴즈쇼의 이벤트 시간을 매일 마련하여 지역특산품인 멸치와 관광 홍보용 스카프를 퀴즈경품으로 제공했다.

시는 지난해와 올 2월에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관광 홍보를 펼쳐오다가 관광홍보의 다양성과 내륙지방에 대한 한려해상 남해안의 자연경관을 널리 알



사천시는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대구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제9회 대구·경북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 사천관광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리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대구·경북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한편, 시는 관광인프라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항공우주산업과 수려한 해상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관광정책을 펼쳐 관광객들이 작은 곳에서도 만족하고 추억을 남기다시 찾고 싶은 사천관광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스릴과 감동 체험을

## ‘에코라인’ 운영...관광객 호평

남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갖고 있다 하여 불리고 있는 사천 남일대해수욕장에 친환경 레저 스포츠인 에코라인이 설치되어 교통안전공단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거쳐 설치되어 지난달 8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에코라인(ECO-LINE)은 유격훈련처럼 극기 훈련도 아니며, 번지점프와 같이 극도의 공포를 유발하지도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레저 스포츠다.

해수욕장 동편 높은 곳에서 서편 낮은 곳으로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185m의 와이어 줄을 타고 역동적인 전율과 함께 바다위를 날아가면서 남일대해수욕장 등 아름다운 해변과 모래사장, 코끼리 바위 등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사천 남일대해수욕장에 레저 스포츠인 에코라인이 설치 운영돼 호응을 얻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레저스포츠 시설로 관광시즌을 맞아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다.

에코라인은 진주에 거주하는 최모씨가 경남도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받아 해수욕장 주변 상가와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올여

름 피서객들에게 큰 인기를 독차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에코라인은 사계절 운영할 계획으로 1회 이용료는 초등학생은 7,000원, 중학생 이상 및 성인인 9,000원이며, 20인 이상 단체와 해수욕장 주변 상가 이용자는 1인 2,000원을 할인해 주고 있다.

# ‘사천시 길라잡이’ 발족식 가져

## 우수한 아이디어 시정에 반영

사천시는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시 소속 직원 9개 팀 44명을 대상으로 4월 1일 ‘사천시 길라잡이’를 발족하였다.

‘사천시 길라잡이’는 공무원의 시정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여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천시 IBT’의 후속 시책으로 지난 2월 사천시 정책자문단 출범에 따라 기존 IBT의 역할을 생활공감정책, 지적재산 발굴 등으로 명확히 하여 제안 활성화를 꾀하였다.

또한, 시는 ‘사천시 길라잡이’

출범 이외에도 시상시기의 연 2회 확대, 국민제안 참여 우수 emblem 인센티브 제공, 제안 실현 회의의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도 제고와 우수아이디어의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길라잡이’란 지난 2월에 직원 공모를 통해 정한 명칭으로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제안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한 후 시행하게 되면 시민에게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 시, 2011년도 주요업무

## ‘평가과제’ 확정 추진

사천시는 지난 4월 21일 사천 시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별로 제출된 총 201개 주요업무 평가과제에 대해 과제별 난이도와 성과지표, 가중치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평가과제를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선정된 주요업무는 추진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평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7월에 중간평가를 하고, 2012년 1월 최종평가를 거쳐 우수사례는 발굴, 전파하고 부진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정발전의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시는 부서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의 시정우수시책」을 선정하여 우수시책 담당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 추진상황을 관리·평가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감으로써 조직 전반의 능률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 주·정차 단속 방법 변경 알림

- 2011년 5월 2일부터 『사천 예고방송』이 카메라 탑재 차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실시간 단속 실시
- 단속시기 : 2011년 5월 2일부터 ~ 연중
- 단속대상 :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차량
- 단속변경사항
  - 인력단속(예고방송) → 차량단속(예고방송 없음)
  - 차량이동 중 불법 주·정차 확인 후 실시간 단속 실시
  -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 안전지대, 곡각지 등 주·정차된 차량 집중 단속
- 단속방법 : 1회 사진 촬영 후 5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 ■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구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
차종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금액	9만원	8만원

# 2011 경제총조사 안내

-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1. 5. 23일부터 6. 24일까지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합니다.
-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분포,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정책, 기업경영 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정통계(제10171호)입니다.
- 조사기간 중 통계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체 현황, 사업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업경영에 바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대상 :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모든 사업체
- 조사기간 : 2011. 5. 23~6. 24. (인터넷조사 5. 16~5. 31.)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인터넷조사 병행)

## 통계법

- 응답의무 : 경제총조사는 국가 지정통계로서 제32조(상실응답의무)에 따라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비밀보호 : 귀 사업체에서 제공해주신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오니 안심하시고 응답하십시오.
- 과태료 : 제25조 및 제41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080콜센터 ☎ 080-200-2011  
사천시 정보법무과 법무팀 ☎ 831-2231

# 모두 함께 즐겁게 놀아요!

## 제10회 사천시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

사천시는 오는 5월 5일 제89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제10회 사천시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행사를 약 7천여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사천공설운동장과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사천시가 주최하고,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되며 오전 10시 식전 행사인 풍물놀이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매직풍선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놀이마당, 도자기 만들기, 장애체험, 소망기구 체험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마당과 더불어 부대행사로 교육 환경개선진전 및 좋은 책 전시 등 다채롭고 풍성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시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는 사천경찰서, 사천교육지원청, 사천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리관 등 여러 유관기관



사천시는 오는 5월 5일 제89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제10회 사천시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행사를 개최한다.

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성공적인 행사와 어린이 보호와 사랑의 사회 분위기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제89회 어린이날 행사 기념

# 모두 함께 즐겁게 놀아요!

# 제10회 사천시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

## 사천공설운동장

- ♡ 성크릿 가든속으로, 이동용 로봇체험
- ♡ 가족1388 드림아이, 월남쌈 시식 코너, 냄룽체험
- ♡ 논라 만들기, 보드게임, 매직풍선(요술풍선)
- ♡ 풍선 나누어 주기, 도자기기체험, 투호, 2인3각
- ♡ 고리던지기, 굴렁쇠굴리기, 다리류어 사탕먹기
- ♡ 페이스페인팅, 병아리메 콕콕콕
- ♡ 점심바구니 터뜨리기, 장애체험(특수교사)
- ♡ 미술시연, 숯대만들기, 천연염색, 떡메치기, 빙튀기
- ♡ 세발자전거, 심폐소생술, 물소화기, 불조심 작품전시

● 일 시 : 2011. 5. 5(목) 09:30~14:00

● 장 소 : 사천공설운동장, 삼천포공설운동장

## 삼천포공설운동장

- ♡ 성크릿 가든속으로, 이동용 로봇체험, 보드게임
- ♡ 가족 1388 드림아이, 풍선 나누어 주기, 월남쌈 시식 코너
- ♡ 매직풍선(요술풍선), 태권도 시범, 냄룽체험
- ♡ 좋은책 전시 및 나팔만들기, 투호, 2인3각, 고리던지기
- ♡ 굴렁쇠굴리기, 다리류어 사탕먹기, 페이스페인팅
- ♡ 세발자전거, 점심바구니 터뜨리기,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 ♡ 문패만들기, 떡메치기, 빙튀기, 오렌지 전구실험
- ♡ 부모님께 편지쓰기, 승마, 물소화기, 심폐소생술체험
- ♡ 미술 시연

● 우천시 : 사천체육관, 삼천포체육관

● 주최/주관 : 사천시/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